

油價 하락과 OECD제국의

石油諸稅 조정

— 대한석유평화 협회 홍보실 —

지난 해 OECD(經濟協力開發機構)국가들에 있어서 휘발유稅는 평균 14%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石油製品에 대한 이러한 큰 폭의 擔稅率증가는 IEA(國際에너지機構)가 최근 조사한 보고서에서 밝혀졌는데, 이러한 전례없는 인상이 油價의 대폭 하락과 때를 같이 하고 있는 점이 특기할 만 하다. 國際石油價格이 폭락함에 따라 각국정부는 재정수입확대를 위한 절호의 기회로 활용, 關稅稅를 인상하기도 했거니와, 國內油價의 인하조정에 따라 擔稅率이 전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진 이유도 있다.

프랑스의 휘발유가격은 리터당 5.40프랑에서 4.5프랑으로 86년 한해동안 16% 하락한 반면 諸稅率은 61%에서 76%로 15% 증가하였다. 한편 尙석유제품에 대한 세율도 소비자가격의 35.5%로부터 48.7%로 높아졌다. 프랑스의 휘발유세율은 지난 78년 62%내외로 결정된 이후 86년까지 거의 변동이 없었다.

西獨도 상황이 이와 비슷하다. 휘발유의 소비자가격에 대한 세율이 78년에 57.9%에서 81년에 46.2%까지 낮아졌다가 86년에 63%로 높아졌다. 그동안 소비자가격은 11% 정도 상승한 반면, 세율은 18% 증가하였다. 燃料油의 擔稅率도 85년 2.8%에서 산업용 重質연료유는 8%, 發電用은 8.9%로 증가하였다. 輕油의 擔稅율은 85년 37.5%

에서 86년에는 53.4%로 증가하였는데, 세액은 리터당 0.442마르크로써 변동이 없는 반면, 소비자가격이 1.114마르크에서 0.828마르크로 하락함에 따라 稅의 비중이 높아진데 원인이 있다.

이탈리아의 휘발유담세율은 85년의 64.4%에서 81.6%로 증가함으로써 OECD국가중 가장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휘발유, 가스오일, 연료유가격은 EEC평균가격을 기초로 하여 정부의 통제를 받아 왔다. 內閣價格委員會는 石油회사들의 가격변경시 이에 대한 승인 여부를 관장해 왔다. 85년에 연료유에 대한 정부의 가격통제가 해제되었으며, 86년에는 가격변경에 대한 정부의 통제권도 해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석유제품 가격을 여전히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輕油가격은 세계적인 輕油의 수요증대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78년 리터당 1,440리라에서 85년에는 6,220리라로 상승하였다. 그후 86년말에는 4,940리라로 하락하였다. 稅源으로써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여 온 輕油는 擔稅율이 78년에 17.4%에서 85년에 19.1%로 증가하고, 다시 86년에 49.9%로 급증하였다. 마찬가지로 정부의 중요 관稅 稅源의 하나인 民生用 輕質연료유도 擔稅율이 85년 32.6%에서 86년에 61.7%로 증가하였다. 한편 소비자가격은 같은 기간동안 23% 하락하여 리터당 5,208리라를 기록했다.

OECD제국의 石油製品가격 증 諸稅비중

(단위 : %)

	1978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프 랑 스								
重質연료유-産業用	.2	.1	.2	3.8	3.6	3.4	9.9	36.8
-發電用	.0	.0	.0	.0	.0	.0	.0	.0
輕質연료유-産業用	22.9	24.8	23.2	21.8	23.7	23.3	23.0	37.2
-民生用	23.3	24.4	22.2	21.5	23.4	23.0	26.5	37.7
輕 油-자동차용	54.2	47.4	42.4	40.5	40.9	41.2	41.7	57.5
휘 발 유	63.2	58.0	52.9	52.7	53.7	57.3	61.8	75.9
西 獨								
重質연료유-産業用*	7.2	4.4	3.1	3.3	3.3	2.7	2.8	8.0
-發電用*	7.2	4.2	3.0	3.2	3.2	2.7	2.8	8.9
輕質연료유-産業用*	4.6	3.0	2.6	2.4	2.6	2.5	2.4	5.5
-民生用	14.6	14.3	13.9	13.6	14.2	14.5	14.4	17.1
輕 油-자동차용*	53.1	41.4	38.4	38.1	39.5	38.5	37.5	53.4
휘 발 유	57.9	48.7	46.2	48.1	50.0	48.7	48.7	63.0
이탈리아								
重質연료유-産業用*	1.4	.6	.4	.4	.3	.3	1.6	9.8
-發電用*	1.4	.6	.4	.4	.4	.3	.3	.0
輕質연료유-産業用*	14.3	9.4	5.2	9.9	18.1	20.2	20.5	54.9
-民生用	24.5	20.6	17.5	21.8	28.9	30.6	32.6	61.7
輕 油-자동차용*	17.4	7.6	4.8	6.8	17.2	19.5	19.1	49.9
휘 발 유	71.2	61.4	60.0	59.5	63.1	65.6	64.4	81.6
日 本								
重質연료유-産業用	.0	.0	.0	.0	.0	.0	.0	.0
-發電用	.0	.0	.0	.0	.0	.0	.0	.0
輕質연료유-産業用	.0	.0	.0	.0	.0	.0	.0	.0
-民生用	.0	.0	.0	.0	.0	.0	.0	.0
輕 油-자동차용	n.a.	23.5	22.4	20.5	22.2	23.1	24.0	29.3
휘 발 유	39.1	35.1	35.3	31.8	33.8	36.0	37.0	44.6
英 國								
重質연료유-産業用*	10.7	8.4	7.1	6.7	6.2	5.1	5.0	11.9
-發電用*	11.5	9.0	7.4	7.2	6.5	5.2	4.7	n. a.
輕質연료유-産業用*	8.4	5.8	5.3	4.8	4.7	4.5	4.1	n. a.
-民生用	6.6	5.1	4.4	3.8	3.7	3.8	3.6	9.4
輕 油-자동차용*	45.0	39.5	41.0	41.6	41.8	43.1	41.1	56.9
휘 발 유	50.3	46.3	51.0	54.2	54.1	54.9	54.3	66.9

註 : * : 부가세 제외

** : 1986년은 3/4분기까지의 평균치

日本에 있어서 휘발유에 대한 세율은 78년 39.1%에서 85년 37.0%, 86년에 44.6%로 증가하여왔으나 다른 OECD국

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휘발유의 소비자가격은 78년에서 85년까지 기간동안 24% 상승하였다가 86년에

16% 하락하였다. 자동차용 輕油에 대한 稅는 80년대 내내 리터당 24円을 유지하여 왔으나, 그동안 세율은 80년 23.5%에서 86년에는 29.3%로 증가하였다. 86년 자동차용 輕油의 소비자가격은 리터당 82円을 기록하였다.

日本에서는 燃料유에 대하여는 일체 稅가 부과되지 않으며, OECD 국가중 캐나다만이 이와 비슷한 정책을 취하고 있다.

英國의 자동차용 輕油가격은 85년 중반에 리터당 37.5파운드로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는데, 이중 稅가 14.5파

운드를 차지하였다. 이후 86년 3/4분기 현재 28.8파운드로 소비자가격은 하락하였으나 稅는 16.4파운드로 오히려 증가하였다. 따라서 소비자가격이 23% 하락한 반면, 세율은 11.6% 증가한 셈이다.

輕質燃料유의 가격도 자동차용 輕油와 비슷한 시기에 최고 수준인 리터당 23.4파운드를 기록한 후 86년에 11.7파운드로 하락하였다. 같은 기간동안 稅는 리터당 0.77파운드에서 1.1파운드로 증가하였다. (피트릴리엄 타임즈 87. 2)

